BTS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 … 그래미 본상 후보는 무산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21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erican Music Awards · AMA)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Artist Of The Year)를 비롯해 3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등 내로라하는 팝스타들을 제치고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상을 품에 안았다.

한국인 가수는 물론 아시아 아티스트가 AMA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다. 이들은 2013년 데뷔 이후 8년 만에 최고 영예를 누리게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외에도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 (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팝송' (Favorite Pop Song) 등 3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라 일찌감치 대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들은 실제로 이날 이 3개 부문에서 모두 트로피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음악성과 작품성을 중시하는 '그래미 어워즈' (Grammy Awards)와 달리 AMA는 상업적 성과와 대중성을 중요한 지표로 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다.

▲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erican Music Awards · AMA)에서 3관왕에 올랐다. 사진=twitter(amas)

방탄소년단은 올해 '버터' 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에서 총 10주 1위를 차지하는 대성공을 거뒀다. 이 외에도 '퍼미션 투 댄스' (Permission To Dance)와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 로도 핫 100 1위를 찍었다. 평생 한 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핫 100 정상을 올 한해에만 12번 찍은 것이다.

한편 AMA 대상을 수상한 방탄소년단은 지난 23일 그래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발표한 그래미상 후보에서 4대 본상인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 후보에 오르지 못했다. 미국 대중음악 매체 빌보드 등은 BTS가 '올해의 레코드' 등 본상 후보에 오를 것으로 예측했었다. BTS는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만 이름을 올렸다.

AP 통신은 이날 그래미가 발표한 후보 명단과 관련해 " '올해의 레코드' 와 '올해의 노래' 부문에서 소셜미디어와 음악 차트를 모두 석권한 몇몇 주요 싱글이 제외됐다" 며 "더욱 놀라운 것은 BTS '버터' 가 퇴짜를 맞았다는 것" 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그룹 BTS의 '버터' 는 올여름 메가 히트곡이지만 그래미는 단 1개 부문 후보에만 BTS를 올려놨다." 고 꼬집었다.

일간 USA투데이도 BTS, 드레이크, 마일리 사이러스 등 팝 차트 1위에 오른 아티스트들이 그래미 주요 후보 지명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USA투데이는 " '버터' 는 더없이 행복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음악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기록을 깬 여름 노래" 라며 "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라는 단 하나의 후보 지명만으로 되는가?" 라고 BTS 팬들에게 물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3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 레코딩 아카데미 회원 중 투표권을 가진 회원 1만1,000여 명의 투표로 수상자를 가린다.

"오징어 게임 제작진 · 배우, 보너스 받아"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인 '오징어 게임' 의 제작 · 출연진이 보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블룸버그통신은 넷플릭스가 최근 오징어 게임 제작 · 출연진에게 보상으로 일회성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출연진이 받은 보너스는 HBO의 드라마 '석세션' (Succession)의 스타 배우들이 받는 일회 출연료보다 적은 금액으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에 많은 수익을 가져다줬음을 인정하는 표시였을 뿐이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오징어 게임의 제작비는 2천100만 달러이지만, 이로 인한 수익은 9억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익의 대부분은 넷플릭스가 챙겼고,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은 첫 시즌 제작으로 큰돈을 벌지 못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 드라마 '오징어 게임', 포스터=넷플릭스

통신은 기존 영화 · TV 제작사와 다른 넷플릭스의 보상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대개의 영화 · TV 스튜디오는 대형 배우나 제작사와 수익금의 일부를 나눠 갖는 계약을 체결한다. 반면 넷플릭스는 성과 기반 계약을 맺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많은 돈을 미리 주는 방식을 채택했다. 프로젝트 성공의 책임을 제작자들에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넷플릭스가 떠안겠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영화나 TV 프로그램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모델이 넷플릭스와 협력하는 제작자들에게 이득이 되지만, 오징어 게임처럼 큰 성공을 거둘 경우엔 그 결실을 공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의 제작진들과 같이 성공한 파트너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후속 시즌을 제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낱말퍼즐 정답

	1 죽		2 기	상	3 청		
4 송	도	삼	절		5 춘	6 풍	
곳			7 초	가		력	
8 니	9 트		풍		10 단	발	
	11 라	벨		12 이		13 전	14 복
	우		15 환	심			불
	16 마	17 개		18 전	화	19 위	복
		20 입	가	심		안	

139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에 있습니다)

7	9		3			8		6
		5		9				
4	6				2		5	
				2		4	3	
	8		6			7		
		9						2
6			1		7	9		
		4			9		7	
				3				8